



미래의 비행훈련은 기술수준이 보다 높아지면서, 훈련의 효율을 높이면서 전투부대에서의 훈련을 감소시킴으로써, 경제성을 도모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잘 표시하고 있다. 美 공군의 EFS, PATS, BFTS/TTTS 역시 모두 훈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

특
집

화보

첨단을 지향하는 우리 국방과 방위산업 경 〈國防과 技術〉 창간12주년 축

B-2 스텔스 폭격기의 공중급유 테스트를 위해서 비행하는 세종류의 비행기는 세계 최강을 과시하는 美 공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. 사진 앞에서부터 KC-10 수송/공중급유기, F-16 전투기, B-2 폭격기. B-2 폭격기는 1980년대말의 기술로 만든 아직 시험비행단계에 있는 첨단 비행기이다



최근 선진국들은 정밀 유도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전술유도탄의 정확도, 효율성, 신뢰성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,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진보된 전술유도탄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非 視線 지령방식 유도탄의 한 부류인 FOG-M (Fibre Optics Guidance Missile)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